

저자 (Authors) 정시열
Jeong Si-youl

출처 (Source) [어문학](#), 2004.3, 453-474 (22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04.3, 453-474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03743>

APA Style 정시열 (2004). 高麗時代 風格批評 研究 - 『破閑集』과 『補閑集』을 대상으로 -. 어문학, 453-47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3 17: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高麗時代 風格批評 研究

- 『破閑集』과 『補閑集』을 대상으로 -

정 시 열 *

〈 목 차 〉

- | | |
|----------------------|---------------------|
| I. 序論 | III. 風格批評에 반영된 詩論 |
| II. 風格批評의 활용 양상 | 1. 『破閑集』: 作法에 대한 관심 |
| 1. 『破閑集』: 詩評의 초기적 경향 | 2. 『補閑集』: 詩의 體裁에 관심 |
| 2. 『補閑集』: 詩評의 전문성 추구 | IV. 結論 |

I. 序論

일반적으로 風格批評이라고 하면 비평가가 자신의 美學的 眼目을 바탕으로 압축된 몇 자의 評語를 통해 비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중국에서 시작된 풍격비평은 南朝·劉勰의 『文心雕龍』, 鍾嶸의 『詩品』, 唐·皎然的 『詩式』, 齊己의 『風騷旨格』, 張爲의 『詩人主客圖』, 司空圖의 『二十四詩品』, 淸·袁枚의 『續詩品』 등에서 그 대략적인 계보와 전통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비평 방식은 우리 나라에도 전해져서 한시 비평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풍격비평에 사용된 평어를 보면 한 자로 된 '1字類', 두 자로 구성된 '2字類', 네 자로 구성된 '4字類'가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파한집』과 『보한집』에는 '1字類'와 '2字類'의 풍격용어가 대부분인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풍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풍격론이라고 할 때, 이러한 풍격론을 실제의 비평에 적용시킨 것이 풍격비평이다. 그러므로 풍격비평의 실례는 각종 시평을 싣고 있는 시화집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국문학사에서 시화집의 간행은 고려 중엽 이후 성행했는데 李仁老의 『破閑集』, 李奎

* 서강대학교 강사

報의 『白雲小說』, 崔滋의 『補閑集』, 李齊賢의 『櫟翁稗說』 등이 모두 이 시기의 저작들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이들 시화집 중 본고에서는 『파한집』과 『보한집』을 텍스트로 해서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과 풍격비평에 반영된 詩論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을 통해서는 두 시화집 사이에 존재하는 시평 수준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풍격비평에 반영된 시론에서는 두 시화집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론이 어떤 면에 주안점을 두는지 그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조 비평 문학은 『파한집』에서 시작해 『보한집』에서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풍격비평 역시 이러한 평가에서 예외는 아니다. 『파한집』에서 시초를 보인 풍격비평은 『보한집』에 와서 비약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고려조 풍격비평 연구에서 『파한집』과 『보한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고 할 만하다.

『파한집』은 선대의 훌륭한 시편들이 인멸될 것을 우려해서¹⁾ 만든 최초의 시화집이라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지만 본격적인 詩評書가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약점과 관련해서 『보한집』의 「序」에는 “학사 이인로가 시문을 대략 모아서 책을 만들어 『파한집』이라 이름했다. 진양공은 그 책의 내용이 넓지 않으므로 나(최자)에게 이어서 보충하려고 명했다”²⁾는 언급이 나온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파한집』에 대한 보완 의식은 문면상 『보한집』의 직접적인 저작 동기가 된다. 여기에다 자신의 문학관을 표출하고자 했던 최자의 개인적 욕구도 전문적 시평서인 『보한집』의 창작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파한집』과 『보한집』이 갖는 비평서로서의 문학사적 위치 및 ‘始作’과 ‘補完’이라는 관계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두 시화집은 본고의 논의에 적합한 텍스트라 하겠다.

두 시화집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파한집』이 『보한집』에 비해 詩評에 대한 적극성이나 집중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평

1) 『破閑集』 「跋」, 名儒韻釋, 工於題詠, 聲馳異域者, 代有之矣. 如吾輩等, 苟不收錄傳於後世, 則堙沒不傳決無疑.

2) 『補閑集』 「序」, 李學士仁老畧集成編, 命曰破閑. 晉陽公以其書未廣, 命予續補.

수준의 高下는 시평의 초기적 경향과 시평의 전문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를 비평하는 실제적 방법인 풍격 비평은 시화에 나타난 시평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을 통해서 『파한집』과 『보한집』, 두 시화집의 시평 수준을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평서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시론의 표출면에서 『파한집』과 『보한집』은 손색이 없으므로 풍격비평에 나타난 시론을 분석함으로써 두 시화집에서 추구하는 시론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풍격비평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비평 용어의 개념 정의³⁾에 주력한 경우가 많은데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개념 정의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 문제에 천착하지는 않겠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先學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고자 한다.

-
- 3) 풍격비평 용어의 개념 정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연구자가 풍격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풍격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희박한 상황에서 각종 시화집에 등장하는 풍격 용어 수백 종의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난해한 작업이다. 실령 개념 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평이 행해질 당시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풍격의 개념을 터득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先人들처럼 생활 속에서 직접 한시를 창작하며 自得하는 것인데 한시 창작의 맥이 거의 끊기다시피한 현시점에서 한시 창작의 경험이 전무한 대부분의 연구자에게는 불가능한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문학계와 중문학계의 관련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중 중국문학이론학회의 풍격용어 개념 정의 작업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서의 개념 정의를 읽어보아도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칠 뿐 명확한 의미 파악은 어려우며, 그 중에는 풍격간의 의미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의미 전달에서의 이러한 난해성은 풍격비평이 갖는 강한 인상비평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풍격론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역대 문인들조차도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인 서술로 정의내리는 데는 어려움을 느꼈기에 결국 『二十四詩品』의 저자인 사공도가 그랬듯이 함축적인 시를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이다.

II. 風格批評의 활용 양상

1. 『破閑集』: 詩評의 초기적 경향

시화집의 효시격인 『파한집』을 보면 시평과 함께 다양한 奇聞逸事가 실려 있어서 시평 외의 사항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파한집』의 이러한 특징은 본격적인 시평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한집』에서 풍격비평은 시·인물·글씨·그림·자연 등 품평 가능한 여러 영역에 활용되는데, 이러한 비평 대상의 다양성은 시평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파한집』을 본격적인 시평서로 평가하기는 어렵게 만들지만 시화집으로서 『파한집』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비평 대상이 각각의 시화 속에서 다른 내용과 무관하게 고립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화의 내용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풍격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평에 대한 인식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파한집』에 사용된 풍격 용어의 종류는 『보한집』에 비해 훨씬 적다. 그렇다면 비평 대상의 다양성과 함께 사용된 풍격 용어의 종류나 수에서도 『파한집』이 갖는 초기 詩評書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확인해보자.

① 어떤 화사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 가지와 마디는 평범한 목객이 그럴 수 있는게 아니요. 동산의 묵회 풍골이 보입니다.”하고는 그 사이에다 여덟 아홉 잎을 그리니 곧 蕭然한 기세가 생겨났다. 옛날 반악은 악광의 지취를 터득하여 명필이 되었고, 정나라의 사령문은 동리가 윤색했는데, 지금 이 대(竹) 역시 조탁의 여기와 반박의 기교가 서로 도와서 이루어지니 흡사 노추의 솜씨에서 나온 것 같아서 凝神이라 할 만하다.⁴⁾

4) 『破閑集』 卷上11, 有一畫史見之曰 此枝節非庸流所能 有東山墨戲風骨. 迺安八九葉於其間, 便有蕭然氣勢. 昔潘岳得樂廣之旨, 緝成名筆, 鄭國之令, 東里猶潤色之, 今是

② 내가 일찍이 귀가의 벽에서 초서로 된 족자 두 개를 보았다. 연기에 그 울리고 집에 비가 새서 형색이 아주 奇古하였다.⁵⁾

③ 제림인 김생은 필법이 奇妙해서 위진 시대 사람도 따라갈 수 없었다. 본조에 이르러서는 오직 대감국사와 학사 홍관이 그 이름을 떨쳤으니, 무릇 보진 화루의 액제와 병풍의 명·제는 모두 두 공의 필적이다. 청평 진락공이 죽자 서호의 중인 혜소가 제문을 짓고, 국사가 썼는데 더욱 힘을 들여 돌에 새겨서 전했으므로 세상에서 삼절이라고 이르니 진실로 최·양의 무리처럼 (글씨가) 살이 찌고 뼈대가 약한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 당시에 평자들이 말하기를, “쇠를 끌어다가 힘줄을 만들고 산을 꺾어다가 뼈대를 만들었기에 힘은 수레갈채를 굽힐 만하고, 날카롭기는 목칼을 뿜을 만하다.”고 하였다.⁶⁾

④ 하물며 우리 나라는 봉래산에서 멀지 않고, 산천이 淸秀하여 중국보다만 배나 나오니, 그 形勝이 어찌 京口와 서로 가까운 점이 없겠는가. ...(중략)... 마침내 같이 올라가서는 기쁜 빛을 얼굴에 띠며 말하기를 “납조의 감로사가 비록 奇麗하여 건줄 데 없지만 세우고 색칠해서 꾸민 솜씨가 다만 나올 뿐이고, 천연적인 자연스러운 형세에 있어서는 이곳과의 차이가 진실로 미미하다.” ...(하략)...⁷⁾

『파한집』에는 시를 포함한 그림·족자·글씨·산수 등 여러 대상에 대한 풍격비평이 나온다. 이러한 비평 대상의 다양성은 시 비평에 있어서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파한집』의 경우 사용된 풍격 용어의 절반 가까이가 시 아닌 다른 대상에 관한 것이다. 시평을 주목적으로 하되 시 외의 주변부에도 상당한 비평적 역량을 기울이는 『파한집』의 이러한 특성은 시만을 집중적으로 평하는 본격적인

竹也, 亦彫琢之餘盤薄之巧, 相資而成, 腴然若出於鑪錘之一手, 可謂凝神矣.

5) 『破閑集』 卷上12, 僕嘗於貴家壁上, 見草書二簇, 煙薰屋漏, 形色頗奇古.

6) 『破閑集』 卷下19, 鷄林人金生筆法奇妙, 非晉魏時人所可望. 至本朝, 唯大鑑國師, 學士洪灌擅其名, 凡寶殿花樓額題及屏障銘戒, 皆二公筆也. 淸平眞樂公卒, 西湖僧惠素撰祭文, 而國師書之, 尤盡力刻石以傳, 世謂之三絕, 固非崔楊輩, 豐肌脆骨者之所及. 當有評者曰 引鐵爲筋, 摧山作骨, 力可伏軾, 利堪穿札.

7) 『破閑集』 卷中18, 況我東國, 去蓬萊山不遠, 山川淸秀, 甲於中朝萬萬, 則其形勝, 豈無與京口相近者乎. ...(中略)... 遂相與登臨之, 喜見眉鬚白 且南朝甘露寺, 雖奇麗無比, 然但營構繪飾之工, 特勝耳, 至於天生地作自然之勢, 與此相去, 眞九牛之一毛也. ...(下略)...

시평서로서의 면모는 아닐 것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①은 소동파의 풍골이 보이는 대나무 그림에 어느 화가가 있을 그려넣자 ‘蕭然’한 기세가 생겨나고, ‘凝神’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림에 관련된 일화인데, 여기서 ‘蕭然’이나 ‘凝神’은 그림을 평하는 풍격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②는 죽자의 연원에 관한 일화로서 어느 집을 방문하고 보게 된 죽자의 형색을 ‘奇古’라는 풍격으로 표현했다. ③에서는 ‘奇妙’라는 용어로 계림인 김생의 필법에 대해 풍격비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살이 풍후하고 뼈대가 약한 것을 싫어한다는 필체에 대한 好惡 및 당시 평자들의 묘사까지 제시하고 있다. ④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천과 감로사에 대해서 각각 ‘清秀’와 ‘奇麗’라는 평을 내렸는데 이러한 풍격평들은 고려의 풍광이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생략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그림·글씨·죽자·산수 등에 대한 일화와 관련된 시가 등장하는데 이런 점이 비평 대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파한집』을 시화집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파한집』이 지닌 시평서로서의 초기적 경향은 인물평에서도 나타난다.

산중의 절을 지나다가 옛날부터 아는 늙은 중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회포를 이야기하다가 작별할 때가 되자 (중은) 술을 받아와서 전송하려 하는데 공은 문 밖에 나와서 이끼 낀 돌에 걸터앉은 채 말하기를, “지난 번 서울을 떠나올 때 임금의 명령이 있었는데 나에게 술을 삼가해서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공양에 쓰는 철발을 가져오시오.”하고는 세 번 따라 마시고 떠났다. 그 발은 한 말 남짓 담을 수 있다고 하니 豪邁함이 모두 이러하였다. 일찍이 척상국이 남천된 것을 슬퍼하여 시 一絶을 지었으니, “용호같은 용자와 철석같은 간장은 충의로써 군왕을 보필하려 하였네. 다만 새가 없어졌으니 활이 감추어질 뿐이요. 회음후가 한왕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⁸⁾

8) 『破閑集』 卷中7, 行過山中精藍, 訪舊知老衲, 握手話懷, 及別黃酒欲錢之, 出門踞苔石上, 乃曰 頃出都有朝旨, 禁臣飲酒不過三爵, 宜持爾應供鐵鉢來, 三酌而去. 其鉢可受一斗餘, 豪邁皆類此. 當悲拓相國南遷一絕, 龍虎雄姿鐵石腸, 欲將忠義輔君王. 只緣烏盡弓藏耳, 不是淮陰背漢皇.

이 일화의 주인공은 김자의다. 최자는 석 잔 이상을 마시지 말라는 왕의 충고를 들은 김자의가 이긴 긴 돌에 앉은 채 종이 반아온 술을 한 말싸리 밥그릇에 연거푸 석 잔을 마시고 떠나는 모습에서 ‘豪邁’라는 풍격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해서는 원문만 제시했을 뿐 어떠한 평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처럼 시보다는 인물에 초점을 둔 『파한집』의 풍격비평 양상에서는 전문적인 시평서로서의 면모를 찾기 어렵다.

풍격비평의 이러한 활용은 “풍격이라는 용어가 風神·風采 등의 뜻과 연결되어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로 풍겨내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데 쓰였고, 漢代 이래로 그러한 뜻에서 부연되어 풍격은 인물을 품평하는 데 쓰였고, 그 종류의 구분을 시도하면서 詩文·書畫를 비롯한 모든 예술에 두루 적용하게 되었다.”⁹⁾는 주장처럼 풍격비평의 연원이 인물 비평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시평이 아닌 인물평에 초점을 두는 『파한집』의 풍격비평 양상은, 인물을 거론하되 시에 초점을 두고 평하는 『보한집』과는 엄밀히 구분되므로, 이것은 비평서로서 『파한집』의 초기 시평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精敏 精妙 精硬 精切 益精 甚的 清婉 清苦 悽婉 危苦 奇妙 流麗 優游 閑淡 渾芳 簡淳 燕拙 深趣 風骨 飄逸 高逸 勁敏 絕倫 遒勁 蕭然 卓越 深遠 天趣 自然 奇險 凝神 仙風 道韻 不恭 奇古 疑密 悽惋 超逸¹⁰⁾

『파한집』에 나타나는 두 자로 구성된 풍격 용어의 종류에 대해 40여 개의 평어를 적출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고, 대략 15개의 평어를 찾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이처럼 가장 빈번히 사용된 2字類 평어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파한집』이 『보한집』¹¹⁾에 비해서 그 수가 상당히 적음은 분명하다.

9)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제2권5호, 심상사, 1974, p.137.

10) 여기서 제시한 풍격 용어는 「李仁老評論研究」(김주한, 『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5, p.178)에서 제시한 30여 개와 「高麗後期 漢詩의 品格 研究」(하정승,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p.57)에 실린 15개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리했다.

풍격비평에 사용된 풍격 용어의 종류나 개수의 증가가 비평에 대한 인식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한집』과 『보한집』에서 보이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현격한 차이는 풍격비평에 대한 이인로의 인식이 최자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풍격론에 대한 여러 자료가 전해지고 있는데 뒤에서 다룰 『보한집』에는 비평 방식에 있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파한집』에는 미미하다. 풍격 용어의 종류와 함께 이런 점들 역시 초기 시평서로서 『파한집』이 갖는 한 특징일 것이다.

2. 『補閑集』: 詩評의 전문성 추구

『보한집』에서는 『파한집』에서 보였던 비평 대상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시평에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한집』은 비평 문학의 꽃을 피운 본격적 시평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비평 양상에서 『파한집』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보한집』의 풍격비평은 작품평에서 그치지 않고, 풍격의 등급을 매기고 시평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 속에는 중국 풍격론에 대한 수용 의지와 자신의 鑑識眼에 대한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그 밖에도 타인의 풍격론에 대한 개방적 자세, 摘句를 통한 풍격 용어의 개념 설명 등 『보한집』의 풍격비평은 그 활용 양상이 실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평서 저술에 대한 최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비평에 사용된 풍격 용어의 종류가 다른 고려 시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방대하다는 점은 시평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보한집』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

11) 『補閑集』에 사용된 二字類 풍격 용어에 대해서 「崔滋評論研究」(김주한, 『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8, p.258)에서는 200여 개에 달한다고 했으며, 「高麗後期 漢詩의 品格 研究」(하정승,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p.61)에서는 80여 개라고 했다.

들을 확인해보자.

만약 시라고 한다면 新奇 絕妙 逸越 含蓄 險怪 俊邁 豪壯 富貴 雄深 古雅한 것이 상이요, 精雋 遶緊 爽豁 清峭 飄逸 勁直 宏瞻 和裕 炳煥 激切 平淡 高逸 優閑 夷曠 清玩 巧麗한 것이 다음이고, 生拙 野疎 蹇澁 寒枯 淺俗 蕪雜 衰弱 淫靡한 것은 병폐다. 무릇 시를 평하는 사람들은 먼저 氣骨意格으로써 하고, 다음으로 辭語聲律로써 하는데 같은 意格 중에도 韻語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聯句가 하나씩 있어서 겹하여 잘 지은 것은 아주 적기 때문에 평하는 말도 또한 번잡하여 같지 않다.¹²⁾

鍾嶸(梁·469-518)은 『詩品』에서 역대의 五言詩人을 대상으로 시의 풍격을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열거했는데 이러한 방식을 최자가 『보한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중영이 이러한 비평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표준이 될 만한 합리적 풍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문학비평 서들의 미흡한 점을 해결하고, 당시의 무분별한 비평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¹³⁾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최자 역시 중영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맥락의 문학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보한집』의 위 인용부는 시가 지닌 풍격의 등급 및 그 품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자가 지닌 詩觀의 압축된 표출로 볼 수 있다. 최자는 시평에서 상에 해당하는 풍격 10개, 그 다음 中에 해당하는 풍격 16개, 마지막 下에 해당하는 풍격 8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풍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氣骨意格·辭語聲律 등의 시평 기준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내용과 형식의 상관성¹⁴⁾을 일정 부분 염두에

12) 『補閑集』 卷下13, 若詩則新奇 絕妙 逸越 含蓄 險怪 俊邁 豪壯 富貴 雄深 古雅上也, 精雋 遶緊 爽豁 清峭 飄逸 勁直 宏瞻 和裕 炳煥 激切 平淡 高逸 優閑 夷曠 清玩 巧麗 次之, 生拙 野疎 蹇澁 寒枯 淺俗 蕪雜 衰弱 淫靡 病也. 夫評詩者, 先以氣骨意格, 次以辭語聲律, 一般意格中, 其韻語, 或有勝劣一聯, 而兼得者盡寡. 故所評之辭亦雜而不同.

13)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 研究』, 『古典批評 用語 研究』, 태학사, 1998, p.226, p.231.

14) 율격이나 압운법과 같은 시의 형식적 기법을 음성적 층위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므로 이것을 의미적 층위까지 확장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은 현대의 문학 이론서(로만 야콥슨,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문학과 지성사, 1989, pp.74-75.)에서도 확인이 되며, 실제로 두보의 악

둔 최자의 비평적 안목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종영의 『시품』에 사용된 ‘上·中·下’의 비평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풍격을 ‘上·次·病’으로 차등화하고, 그에 따른 비평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한집』이 갖는 본격적인 시평서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어떤 호사자가 성을 칠언연구를 모아 평하고 그것을 상하로 차례를 매겨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저 응심하고 기묘하고 고아하고 평원한 시구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자세히 보기를 오래한 뒤에야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보의 시 같은 것이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모은 약간의 연구들은 모두 한 번 보면 좋아할 말들로서 한가함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그대는 후편에 기록해 주시오.”라고 했다. 그가 평한 것을 보면 모두 옛 사람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자기 소견으로 논했으나 오히려 취할 만한 것이 있어 다음에 열거해 놓는다. ...(중략)... 아름답고 고운(婉麗) 시구로는 문순공의 「夏日即事」에 나오는 “뻑뻑한 잎에 가리워진 꽃은 봄이 지나간 뒤에도 남아 있고, 얽은 구름 사이로 새는 햇살은 빗속에서 밝구나.”와 같은 것이다. ...(하략)...¹⁵⁾

이 일화에 등장하는 好事者が 최자 자신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문맥상 최자는 아닌 듯하다. 호사자는 상당한 鑑識眼을 요구하는 ‘雄深’·奇妙·古雅·宏遠한 시구들 대신 玩賞에 용이한 20여 종의 풍격에 해당하는 시구들을 제시함으로써 ‘補閑’이란 제목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서 대중성과 풍격의 우열이 반드시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최자가 별다른 비판없이 이 내용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응심·기묘·고아·평원의 풍격에 대한 그의 관점도 好事者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비평 방식상 『보한집』은 풍격에 대한 여러 시인 목객들의 비평을 수

부시 「병거행」의 압운 방식을 내용과의 관련하에 분석한 논의(이영주, 「杜甫 <兵車行> 考」, 『중국문학』 제30집, 1998, p.243.)도 있다.

- 15) 『補閑集』 卷下1, 有一好事者, 集聲律七字聯評之, 第其上下, 屬予曰 彼雄深奇妙古雅宏遠之句, 必反覆詳閱, 久而後得味, 故學者不悅. 如工部詩之類也. 今所集若干聯, 皆一見即悅之語, 可以資補閑, 君其錄於後編. 觀其所評, 皆不法古人, 新以臆論之, 尙有可取, 列之于左.(中略)... 婉麗如文順公夏日即事云 密葉翳花春後在, 薄雲漏日雨中明. ...(下略)...

용해서 제시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때 인용된 비평은 저자인 최자의 견해를 대변해 주거나 혹은 최자 자신의 비평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¹⁶⁾ 위의 일화에서도 최자는 “(호사자가) 고인을 법받지 않고 새롭게 자기 소견으로 논했으나 오히려 취할 만한 점이 있다.”는 말로 호사자의 풍격론을 인용하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詩觀과 詩評을 취하려는 개방적 자세하에 수십 종의 풍격 용어 각각에 해당되는 시구들을 7언 2구의 규칙하에 제시함으로써 풍격 용어의 개념에 실증적으로 다가서려고 했던 최자의 시도는 『보한집』이 지닌 적극적인 비평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지금의 시인들이 평하기를, 문안공 유송단은 말이 굳세고(勁) 뜻이 순박하며(淳) 용사가 정밀하고 간결하다(精簡). 정숙공 김인경은 글자를 사용할 때 반드시 맑고 새롭게(清新)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매번 시 한 편이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문순공 이규보는 기운이 장하고(壯) 말이 웅장하여(雄) 創意가 新奇롭다. ...(하략)¹⁷⁾

『보한집』에서 인물평은 인품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시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위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勁·淳·精簡·清新·壯·雄·新奇 등의 풍격 용어를 통해 문안공의 語·意·用事, 정숙공의 使字, 문순공의 氣·辭·創意 등 詩와 관련된 부분을 평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을 평할 경우 한 인물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 詩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평을 내리는 『보한집』이야말로 인품에 대한 평이 주를 이루는 『파한집』에 비해 전문적인 시평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16) 이와 관련하여 장홍재는 『고려시대 시화비평 연구』(아세아문화사, 1987, pp.72-77)에서 일체의 自意를 개입시키지 않고 남의 비평을 옮겨놓는 것을 他意批評, 自意로 비평을 하되 필요한 부분에 남의 비평을 인용하는 것을 引用批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間接批評이라고 했다.

17) 『補閑集』 卷中3, 今之詩人評曰 俞文安公升旦, 語勁意淳用事精簡. 金貞肅公仁鏡, 凡使字必欲清新, 故每出一篇, 動驚時俗. 李文順公奎報, 氣壯辭雄, 創意新奇. ...(下略)

Ⅲ. 風格批評에 반영된 詩論

1. 『破閑集』: 作法에 대한 관심

『東文選』에 실린 84편의 시 및 『파한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인로는 당대의 뛰어난 시인이요, 비평가였다. 최자의 『보한집』에는 “학사 이인로는 말이 모두 格이 높고 用事한 것은 神과 같아서 비록 고인의 발두독을 밟기는 했지만 鍊琢의 공교로움이 고인보다 뛰어나다.”¹⁸⁾는 평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는 ‘精切한 用事와 鍊琢의 결합을 통해 新意를 창출하는 格調 높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이인로의 시론¹⁹⁾이 잘 반영되어 있다. 문학에 대해 이인로가 지녔던 비평 의식의 결집체가 『파한집』인 만큼 본고에서는 『파한집』 소재 풍격비평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의 작법에 비중을 둔 이인로의 시론을 살펴보겠다.

① 기지는 한탄하며 시를 지어 이르기를, “누대에 올라 통소 부는 짝이 되

18) 『補閑集』 卷中3, 李學士仁老, 言皆格勝, 使事如神, 雖有躡古人畦畛處, 琢鍊之巧青於藍也.

19) 이인로를 用事論者·形式論者·前代의 詩文을 본받은 자로, 이규보를 新意論者·內容論者·前代의 詩文을 본받지 않은 자로 양분해서 논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요일은 「用事와 新意가 오해된 이유」(『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및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일조각, 2000)에 수록된 「이인로와 이규보의 문학관은 다른가?」·「이규보의 문학사상」·「한시비평 용어의 개념 규정」 등 일련의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양분법이 오류임을 밝혔다. 특히 이인로에 대해 新意를 무시한 채 用事만을 중시하는 용사론자로 보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新意를 도외시한 채 用事만을 추구할 사람은 없다’는 상식에서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기존 논자들의 변역상의 몇몇 오류점도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주한은 「李仁老評論研究」(『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5, p.160)에서 기존 논의 중에는 용사라는 형식적인 면에 주목함으로써 이인로의 시론에 포함된 내용면을 소홀히 한 것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심호택은 『高麗中期文學論 研究』(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1, pp.105-109)에서 『파한집』의 분석을 통해 이인로의 문학론이 형식보다는 오히려 내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어 주지 않고, 월궁으로 도망하여 속절없이 악을 흥친 선녀가 되었네. 장관의 엄한 호령은 겁내지 않고, 부절없이 나그네에게 나쁜 인연이라며 화를 내네.” 라고 하였는데 그 용사가 더욱 정밀하니(精) 이것은 고인이 말한 “금실로 수를 놓으니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²⁰⁾

② 이에 이르기를 “요와 순은 자식에게 전하기 어려웠고, 상과 주는 공덕으로 얻었다.”라고 하였다. 용사의 精妙함이 이와 같았기에 과연 급제하여 한 시대의 명인이 되었다.²¹⁾

위의 ①·②는 用事에 대한 풍격비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사는 시문을 지을 때 前代의 역사적 사실이나 前人の 말 또는 글을 이끌어다 씌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작법이다.²²⁾ 그러므로 精切한 용사는 作詩나 詩評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파한집』의 풍격비평 중에는 훌륭한 용사에 대한 찬평이 많다.

①에서 이인로는 기지 임춘의 시에 사용된 용사에 대해 ‘精’이라는 풍격비평을 하고 있다. 『파한집』에서 풍격 용어 ‘精’이 나오는 용례로는 精敏·精妙·精切·精硬 등이 있는데 모두 해당 문맥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은 시평에 이어 고인의 말을 인용한 “금실로 수를 놓았다”(鑿金結繡)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②는 박원개가 사마시에 나아가 지은 시에 대해 그 용사가 ‘精妙’함을 찬탄한 내용이다. 여기서 “과연 급제하여 한 시대의 명인이 되었다”(果擢第, 爲一時聞人)는 이인로의 언급은 풍격용어 ‘精妙’가 함의한 긍정성을 잘 전달해 준다.

이상 ①·②에 제시된 용사에 대한 풍격비평을 통해 이인로가 정절한 용사를 중시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 풍격비평에 나타난 用事와 鍊琢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20) 『破閑集』 卷下8, 蒼之悵然作詩曰 登樓未作吹簫伴, 奔月空爲竊藥仙. 不怕長官嚴號令, 謾嗔行客惡因緣. 其用事益精, 此古人所謂 鑿金結繡, 而無痕迹.

21) 『破閑集』 卷下3, 乃曰 高舜難傳子, 商周得以功. 使事精妙如此, 果擢第, 爲一時聞人.

22) 정요일·박성규·강재철, 「고전 문학비평 용어의 개념 규정」, 『성곡논총』 제21집, 1990, p.56.

시구를 연탁하는 법은 오직 두보가 홀로 그 妙를 다했다. ...(중략)... 사람의 재주는 마치 그릇이 모나고 둥근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할 수 없으나 천하의 기이한 경지와 이상한 구경거리는 사람의 마음과 눈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진실로 재주가 뜻에 미치지 못하면 비유컨대 둔한 말이 연나라와 월나라간의 천리길에 나서는 것과 같아서 채찍질을 비록 부지런히 하더라도 멀리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감히 함부로 손을 놀리지 않았으니, 반드시 연탁의 공을 가한 후에 야 빛을 드리워 무지개가 천고에 찬란히 비치게 할 수 있었다. ...(중략)... 소동파나 황산곡의 경지에 이르면 용사가 더욱 정교해지고(精), 빼어난(逸) 기운이 넘쳐 흐르니 연탁의 妙가 두보와 견줄 만하다.²³⁾

琢句란 바로 詩句를 鍊琢하는 것이다. 연탁은 쇠를 달구어 두드리고 담금질하는 과정을 통해 연장을 만들어내며, 절차탁마의 자세로 쪼고 갈아서 휘황찬란한 옥을 가공해내듯 시를 짓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성된 자세를 의미하는 작법류 용어이다.²⁴⁾ 이러한 연탁에 대해 이인로는 오직 두보만이 그 ‘妙’를 다했다고 평했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두보의 시에는 연탁의 ‘妙’가 나타난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妙’라는 풍격평에는 琢句의 방법론적인 오묘함²⁵⁾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연탁의 어려움을 예시하면서 소동파와 황산곡을 거론한 대목에 오면 ‘使事益精’의 ‘精’·‘逸氣橫出’의 ‘逸’·‘琢句之妙’의 ‘妙’와 같은 풍격평이 나오는데 시에서 용사가 ‘精’해지고, 범상한 氣가 아닌 ‘逸’氣가 횡출함은 작품의 우수성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맥상 이러한 우수성은 ‘妙’한 연탁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목은 精切한 용사와 연탁의 관련성을 지적한 것임을 알

23) 『破閑集』 卷上20, 琢句之法, 唯少陵獨盡其妙. ...(中略)... 且人之才如器皿方圓, 不可以該備, 而天下奇觀異賞, 可以悅心目者甚夥, 苟能才不逮意, 則譬如駕蹄臨燕越千里之途, 鞭策雖勤, 不可以致遠. 是以古之人, 雖有逸材, 不敢妄下手, 必加鍊琢之工, 然後足以垂光, 虹蜺輝映千古. ...(中略)... 及至蘇黃, 則使事益精, 逸氣橫出, 琢句之妙, 可以與少陵并駕.

24) 정요일, 「한시비평 용어의 개념 규정」, 『한문학의 연구와 해석』, 일조각, 2000, pp.211-213.

25) 『破閑集』 卷上10을 보면 畫法에 대해 ‘妙’라고 평한 용례가 나온다. 물론 ‘妙’라는 평어의 용례가 다양하겠지만 作詩의 방법론적인 측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 있다. 이처럼 『파한집』에는 용사·연탁 등의 작법에 대한 풍격비평이 많다.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용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점귀부’라 하며, 이상은은 용사가 험벽하여 ‘서곤체’라고 했으니 이것은 모두 문장의 병폐다. 근래에 소동파와 황산곡이 颯起하여 비록 그 법을 따르고 숭상했으나 造語가 더욱 교묘하여(工) 마침내 다듬은 흔적이 없으니 靑出於藍이라고 할 만하다. 동파가 지은 시에 “고래를 타고 넓은 데서 노는 걸 보았고, 일찍이 이를 잠으며 비애와 신고를 말하던 걸 생각한다.”, “긴 밤에 집을 생각하오니 어디에 있는고, 늙은 나이에 네가 멀리서 온 정을 알겠노라.”와 같은 것은 구법이 조화를 부린 것 같아서 읽는 사람들이 무슨 고사를 인용했는지 모른다. ...(중략)... 내 벗 기지(임춘)가 또한 그 妙를 얻었으니 “세월은 자주 양감이 익은 것에 놀랐고, 풍소는 거듭 학천이 싸늘할 때 모였네. 마음 속에는 일찍 정신이 가득함을 알았고, 가슴 속에는 더러움이 생기는게 모두 없어졌네.”와 같은 것은 모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 진실로 고인에 부끄럽지 않다.²⁶⁾

위의 인용문에는 용사에 대한 상반된 풍격평으로 ‘險僻’과 ‘工’이 나온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용사는 시를 짓는 데 있어 필요한 작법이다. 그러나 용사를 하되 솜씨가 공교롭지 못하면 뜻이 뒤집히고 말이 생소해지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므로 역대의 시인이나 비평가들은 정절하지 못한 용사를 경계해 왔다.²⁷⁾ 이러한 연유에서 용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點鬼簿’나 ‘西崑體’는 ‘險僻’이라는 풍격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절하지 못한 용사의 예들이다.

용사의 병폐가 있는 반면에 용사가 훌륭하면 시의 造語가 더욱 공(工)하게 되며, 句法은 조화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여기서 시의 造語가 ‘工’하다는 풍격평어나 句法의 造化生成에 대한 부분은 ‘부착의 흔적

26) 『破閑集』卷下4, 詩家作詩多使事, 謂之點鬼簿, 李商隱用事險僻, 號西崑體, 此皆文章一病. 近者蘇黃颯起, 雖迫向其法, 而造語益工, 了無斧鑿之痕, 可謂靑於藍. 如東坡見說騎鯨遊汗漫, 憶曾捫風話悲辛, 永夜思家在何處, 殘年知爾遠來情. 句法如造化生成, 讀之者莫之用何事. ...(中略)... 吾友著之, 亦得其妙, 如歲月屢驚羊脾熱, 風騷重會鶴天寒. 腹中早識精神滿, 胸次都無鄙吝生. 皆播在人口, 真不愧於古人.

27) 정요일, 앞의 논문, 앞의 책, p.195.

이 없다'(無斧鑿之痕), '靑出於藍', '읽는 자가 무슨 고사를 사용했는지 모른다'(讀之者莫之用何事)는 말에서 드러나듯 용사의 솜씨가 대단함을 의미한다. 이인로는 이런 용사의 妙를 蓄之가 터득해서 고인에 부끄럽지 않다고 했으니 바로 임춘의 시에 나타난 용사의 精切함에 대해 '妙'라는 풍격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환산곡이 시를 논하여 이르기를, "고인의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을 지어내는 것을 환골이라 하고, 고인의 뜻을 본받아서 형용해 내는 것을 탈태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그 活剝生吞하는 것과의 차이가 천연지차와 같다고 하겠으나 표절·약탈하고 몰래 훔쳐서 (자기의) 공교로움을 삼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이른바 고인이 이르지 못한 경지에서 新意를 내어 묘함으로 삼느니만 하겠는가.²⁸⁾

위의 인용에서는 換骨·奪胎와 같은 작법이 活剝生吞보다 낫지만 그래도 剽竊을 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 다음, 표절한 시와 新意를 창출한 시를 대비하며 그 각각에 대해 '工'과 '妙'라는 풍격비평을 했다. 여기서 표절의 공교로움을 의미하는 工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고인으로부터의 靑出於藍을 의미하는 妙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妙'와 '古人所不到'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인들이 남겨놓은 작품보다 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이인로의 문학적 야망과 진지한 문학정신이 반영되어 있다.²⁹⁾ 이처럼 이인로는 상반되는 풍격평의 대비를 통해 新意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補閑集』: 詩의 體裁에 관심

당대 최고의 문학 평론서라 할 만한 『보한집』에는 최자의 비평가적 면모를 반영해 주는 다양한 시론들이 나온다. 이 중 풍격론과 관련해

28) 『破閑集』 卷下20, 昔山谷論詩, 以謂不易古人之意, 而造其語, 謂之換骨, 規模古人之意, 而形容之, 謂之奪胎, 此雖與夫活剝生吞者, 相去如天淵, 然未免剽掠潛竊以爲之工, 豈所謂出新意於古人所不到者之爲妙哉.

29) 심호택, 『高麗中期 文學論 研究』,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1, pp.125-126.

서, 최자는 上·次·病의 三分案에서 수십 종의 풍격 용어를 제시한 다음, 이어서 “시를 평하는 사람들은 먼저 氣骨意格으로써 하고, 다음으로 辭語聲律으로써 하는데 같은 意格 중에도 그 韻語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聯句가 하나씩 있어서 겹하여 잘 지은 것은 아주 적기 때문에 평하는 말도 또한 번잡하여 같지 않다.”³⁰⁾ 라는 언급을 통해 시평의 기준이 1차적으로 氣骨意格에 있고 2차적으로 辭語聲律에 있음을 밝혔다. 이 구절에서 최자는 자기를 문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評詩者’로 시작하는데, 이 속에 최자가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氣骨意格과 辭語聲律을 중시한 최자의 시평 기준은 “문장은 豪邁하고 壯逸한 것으로써 氣를 삼고, 勁峻하고 淸駛한 것으로써 뼈를 삼고, 正直하고 精詳한 것으로써 뜻을 삼고, 富瞻하고 宏肆한 것으로써 말을 삼고, 簡古하고 倔强한 것으로써 體를 삼는다.”³¹⁾ 는 그의 문장 기준에서도 나타난다.

그럼 氣骨意格·辭語聲律 등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의 시적 체재를 중시한 최자의 시론을 『보한집』 소재 풍격비평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고찰해 보자.

시문은 氣를 주로 삼는다. 氣는 性에서 나오고 뜻(意)은 氣에 의지하며 말(言)은 情에서 나오니 情이 바로 뜻(意)이다. 新奇한 뜻(意)은 말 만들기(立語)가 더욱 어렵고 자칫하면 生濫해진다. 비록 문순공이라 할지라도 경사백가를 두루 봐서 몸에 꼭 배웠기 때문에 그 말(辭)이 자연히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다(富艷). 비록 새로운 뜻(新意)이 지극히 미묘하고 형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말을 曲盡히 해서 모두 精熟했다.³²⁾

30) 『補閑集』 卷下13, 夫評詩者, 先以氣骨意格, 次以辭語聲律, 一般意格中, 其韻語, 或有勝劣一聯, 而兼得者盡寡. 故所評之辭亦雜而不同.

31) 『補閑集』 卷下13, 文以豪邁壯逸爲氣, 勁峻淸駛爲骨, 正直精詳爲意, 富瞻宏肆爲辭, 簡古倔强爲體.

32) 『補閑集』 卷下46, 詩文以氣爲主, 氣發於性, 意憑於氣, 言出於情, 情卽意也, 而新奇之意, 立語尤難, 輒爲生濫. 雖文順公, 遍閱經史百家薰芳染彩, 故其辭自然富艷. 雖新意至微難狀處, 曲盡其言, 而皆精熟.

위 인용문에서 최자는 新奇와 生澁이라는 풍격 용어를 통해 시에서 뜻(意)과 말(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뜻은 氣에 의지하며 말은 情에서 나오는데 뜻이 新奇한 시는 立語가 生澁해질 수 있다는 언급은 作詩에서 시적 체재를 잘 갖추기가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

최자는 시에서 主가 되는 것은 氣라고 했다. 그러므로 氣에 의지하는 뜻이 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作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훌륭한 시는 문순공의 예에서 보듯 뜻(意)과 말(辭)이 조화를 이룬 데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시평에서 氣骨意格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辭語聲律을 보지만 意格과 韻語가 겸하여 잘된 것이 좋은 시라는 언급과 맥락이 통한다. 문순공의 시를 논하는 데 사용된 富艷·曲盡·精熟 등 긍정적 의미의 풍격 용어에는 시평에서 意·辭·語를 중시한 최자의 시론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에 이학사 춘경의 詩稿를 얻어보니 警絶한 新意가 매우 많았다. 그 장편 중에는 氣가 末句에 이르러 더욱 장해지니(愈壯) 마치 천리마가 넓은 거리를 달리다가 중도에서 억지로 멈춘 듯했다.³³⁾

위의 시평에서 警絶한 新意가 많다는 말은 시의 뜻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末句에 이르러서 氣가 더욱 壯해진다고 했는데, “뜻은 기에 의지한다”(意憑於氣)는 최자의 주장대로라면 춘경의 시에 나타난 警絶한 新意는 달리던 천리마가 갑자기 멈춘 듯한 壯한 氣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처럼 新意가 警絶하고 氣가 愈壯하다는 풍격비평은 氣와 意를 중시한 최자의 시론을 반영하고 있다.

...(상략)...당시 사람들은 이 시를 두고 말(言)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氣가 호탕(豪)하고 뜻(意)이 활달(豁)하다고 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열 자 안에 ‘無際’(끝이 없다)라 하였고 또 ‘不窮’(다함이 없다)이라 하였으며, 혹 위에서는 ‘望不窮’(바라보아도 다함이 없다)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千里目’(천리를 본다)이라고 하여 뜻(意)이 중첩된 것 같으나 읽어보면 뜻이 서로 중첩된 것을 알 수 없으니 대개 聲病이 없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이 聲病을 피하는 것으로 金針格

33) 『補閑集』 卷中19, 近得李學士春卿詩稿見之, 警節新意頗多. 其長篇中氣至末句而愈壯, 如千里驥足方展走通衢, 未半途勒止也.

을 삼은 것은 진실이다.³⁴⁾

앞서 밝혔듯이 최자는 시평에서 氣骨意格과 辭語聲律을 중시했다. 그의 이러한 시평 기준은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풍격평에 잘 반영되어 있다. 氣와 意에 대해 豪·豁이라는 풍격비평을 하고 있으며, 시의 뜻이 중첩된 것 같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를 직접 읽어보면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없으니 바로 平仄과 聲調의 병폐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와 같이 詩作에서 聲律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을 통해 최자의 詩論에 聲律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평 기준으로서의 성률은 단순히 평측만을 맞추는 데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시의 의미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보한집』의 풍격비평은 시적 체재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

...(상략)...이 두 연은 한 골격(骨)인데 ‘雨送’의 聯이 그 氣가 飄然하다...(중략)...모두 한 골격(骨)인데 ‘萬里清風’이란 말(語)이 더욱 아름답다(佳)...(중략)...이 다섯 연은 모두 한 골격(骨)인데 ‘滿衣花影’이란 어구가 格이 더욱 낫다(勝)...(중략)...모두 한 골격(骨)인데 유충기의 시가 더욱 膽壯하다.³⁵⁾

유형은 문학 이론에 풍골의 개념을 최초로 수용하였다. 『文心雕龍』·『風骨』篇을 통해 볼 때, 骨이란 用字·造語·造句·鎔裁 등 작품의 뼈대를 형성하는 제 요소 및 전체 뼈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생각을 표현할 때 생기는 剛한 美感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³⁶⁾ 위에 인용된 시평을 보면 동일한 골격(骨)을 가진 시구들 중 어느 한 구를 선정해서 풍격비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골격에 대해서 평한 것이 아니라, ‘氣飄然’·‘語尤佳’·‘格尤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氣’·‘語’·

34) 『補閑集』 卷上33, ...(上略)... 時人以此聯, 言不雕鑿, 而氣豪意豁. 雖然十字中言無際, 又言不窮, 或上言望不窮, 下言千里月, 似乎意疊, 而讀之不知有相疊之意者, 蓋無聲病也. 古人以回忌聲病, 爲金針格, 信哉.

35) 『補閑集』 卷下1, ...(上略)... 此二聯一骨, 而雨送之聯, 其氣飄然. ...(中略)... 皆一骨也, 萬里清風之語尤佳. ...(中略)... 此五聯皆一骨也, 滿衣花影之語句格尤勝. ...(中略)... 皆一骨而劉尤膽壯.

36) 원종례, 「中國古典詩歌文藝美學의 美的範疇에 대한 文學社會學的 研究」, 『중국학보』 제43집, 2001, pp.81-83 참조.

‘格’에 대해서 평했다. 이러한 방식은 “풍격비평이란 특정한 비평 대상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것만의 고유한 미적 특성을 변별해내는 작업”³⁷⁾이라는 정의와 잘 부합한다. 즉, 위의 시평에서는 같은 골격이라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시구들을 대상으로 각 시구의 氣·語·格이라는 고유한 미적 특성에 대해 평한 것이다. 이처럼 『보한집』은 氣骨意格 등의 시적 체재를 풍격비평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IV. 結論

중국에서 시작된 풍격비평은 우리 나라 評壇에도 전해져서 고려 중엽 이후 나오기 시작한 시화집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시화집 중 『파한집』은 이인로가 先代의 시편들이 인멸될 것을 우려해서 만든 최초의 시화집이며, 『보한집』은 비평서를 저작하고자 하는 최자의 의지가 『파한집』에 대한 보완 의식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시화집이다. 본고에서는 두 시화집을 대상으로 해서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과 풍격비평에 반영된 시론을 논의했다.

먼저 두 시화집에 나타난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파한집』이 초기적 시평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보한집』은 전문적인 시평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들자면 『파한집』은 시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비평을 하는 산만성 때문에 시평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지만, 『보한집』은 풍격론을 체계화하면서 일관되게 시평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풍격비평에 반영된 시론을 보면 『파한집』에는 用事와 鍊琢을 통해 新意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의 작법에 관련된 시론이 많았으며, 『보한집』에는 氣骨意格 및 辭語聲律과 같은 시의 내용적·형식적 체재에 관련된 시론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두 시화집 모두 시론의 포출이라는 비평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7) 팽철호, 『중국고전문학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p.79.

향후의 연구에서는 풍격비평의 활용 양상 및 풍격비평에 반영된 시론에 대한 보다 분명한 고찰을 위해 비평 행위의 구체적 실례를 통한 정지한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풍격(Style), 풍격비평(Style Criticism), 파한집(Pahanjib), 보한집(Bohanjib), 시화집(Sihwajib)

참고문헌

- 李仁老, 『破閑集』
崔 滋, 『補閑集』
이상보 譯, 『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 대양서적, 1972.
유재영 譯註, 『破閑集』, 일지사, 1978.
_____ 譯註, 『補閑集』, 원광대출판부, 1981.
박성규 譯, 『補閑集』, 계명대출판부, 1984.
- 김주한, 『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5.
심호택, 『高麗中期 文學論 研究』,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1.
원종례, 「中國古典詩歌文藝美學의 美的範疇에 대한 文學社會學的 研究」, 『중국학보』제43집, 2001.
-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 研究」, 『古典批評 用語 研究』, 태학사, 1998.
장홍재, 『高麗時代 詩話批評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7.
정요일·박성규·강재철, 「古典 文學批評 用語의 概念 規定」, 『성곡논총』 제21집, 1990.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_____,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일조각, 2000.
차주환, 「唐代的 風格論」上, 『心象』제2권5호, 심상사, 1974.
맹철호, 『중국고전문학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하정승, 「高麗後期 漢詩의 品格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이 논문은 2004년 1월 2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1월 28일부터 2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2월 2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A Study on Style Criticism in the Goryeo Dynasty Period

Jeong, Si-youl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style criticism which appeared in Lee-Inro's 『Pahanjib』 and Choi-Ja's 『Bohanjib』. 『Pahanjib』 and 『Bohanjib』 were created in the Goryeo Dynasty period. A style criticism is based on a critic's aesthetic feeling. And the form is composed of one, two or four letters. According to this study's result, the first, 『Bohanjib』's style criticism is professional than 『Pahanjib』's. The second, 『Pahanjib』's poetics is concerned with a composition way which composes a poem. And 『Bohanjib』's poetics is concerned with a poetic formation.